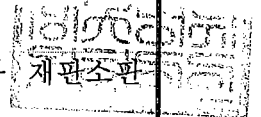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한 남 규	일본명	
	한 자	韓 南 奎	이 명	
출 생 연월일	1874년 1월 4일		사 망 연월일	미 상
보 조	忠淸北道 淸州			
주 소 경 력	1904년 이전			
	1874.1.4	출생 (조선신사보감, 887쪽)		
	1902	農商工部 主事 (같은 자료)		
	1904년 ~ 1945년			
	1904.12	일진회 함경남도지부회장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5쪽)		
	1906.5.11 현재	일진회 평의원 (같은 자료, 卷之三, 27쪽)		
	1906.5.11	함경남도 明川郡守 (같은 자료)		
	1907.7.5~1908.6.13	함경남도관찰사. 함경남도 세무감과 사 겸임. (같은 자료, 卷之四, 54쪽; 卷之六, 14쪽; 조선신사보감, 887쪽)		
	1907	함경남도 선유사 (조선신사보감, 887쪽)		
	1908.7.28	대한제국정부로부터 훈4등 태극장을 받음. (같은 자료, 卷之六, 19쪽)		
	1908.11	일본정부로부터 훈7등 서보장 받음.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1909.1	대한노동회 총무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29일 1면; 황성신문, 1909년 2월 3일 3면)		
	1909.3.1	일진회 총무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9쪽)		
	1911	함경남도 道參事 (조선신사보감, 887쪽)		
1919~1920	함경남도 도참사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1919; 1920)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 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와 관련하여

1)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문명사, 1911, 41~42쪽.

“(1909년 12월 3일) 하오 7시 30분에 본부 내에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용구가 설명하기를 현금 國과 民의 위태로운 형세가 시일이 절박한즉 부득불 우리 황실을 존영케 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토록 복리를 누리게 하며 위로 정부로부터 아래로 사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하기로 목적하여 萬世無窮의 기초를 확정하고 政合邦을 성립케 할 일을 우리 황상폐하께와 대일본천황폐하의 天聽의 上徹하여 期圖實行하자 함에 會衆이 일치가결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3~56쪽.

「전국동포에게 포고한 성명서」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에 충만한 조국정신을 분발하고 큰 소리를 질러 방금 일본 여론의 주창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물결을 막고 파도를 잠자게 하고 우리 대황제 폐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을 꿰뚫는 一團精誠으로 哀訴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 존송하는 기초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의 일등 대우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하기로 주창하여 일대 정치기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열등에 있는 수치를 해탈하고 동등정치의 권리를 획득하는 법률상 政合邦이라 하는 일문제이다. (중략)

음희 3년(1909)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회원 백 만”



▶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2면, 「一進議決」.

“再昨夜에 일진회 본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在京 회원 약 250명과 지방으로 上京한 회원 80여명 합계 330여명의 회원이 합동하여 한일 양국에 관계된 서류를 대황제폐하게 봉정하고 통감부에 송치할 次로 起草하기를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2면, 「합병한다네」.

“일진회에서는 재작일 밤에 회를 크게 하고 서울회원 이백오십명과 지방회원 칠십여명이 출석하여 한국과 일본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작일에 대황제폐하게 상주문을 봉정하고 증미통감에게 건의서를 보내었다더라.”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원서방, 1966, 527쪽.

“(전략) 그런데 이날 밤 총회에는, 총무원 및 지방의 평의원을 합하여 3백여 명이 출석하였다(이전부터 경성에 소집된 자 80여명). 그리하여 대체로 贊否를 물었더니, 반대자는 겨우 2명뿐이었다.”

▶ 『통감부문서』 10권, 24 통감상경중왕복서류, 「(21)菊池忠三郎에 관한 보고의 첩, 菊池忠三郎에 관한 건(憲機 제471호 사본)」

“[부속서] 본일 桂후작으로부터 拙者에게 다음과 같은 內訓이 있었다.

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견서는 其筋을 受理하고 합방반대의견서는 모두 각하할 것을 了解해야 함. (중략)

三. 일진회가 多年 親日的 操志의 苦節을 守하여 온건 통일한 행동을 취하고 양국을 위해 盡瘁하여 온 성의는 능히 了得하고 있다. (중략)

명치 43년(1910) 2월 2일

杉山茂丸”

2) 합방청원운동과정에서 한남규의 지위와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9쪽.

“(1909년 3월 18일) 現闕 총무원은 원임 평의원 한남규로 투표 선정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八, 7쪽.

“(1910년 3월 22일) 하오 1시에 금번 渡韓한 對韓同志會 總代 五百木良三을 환영하기 위하여 명월관에 오찬회를 열고 국민동지찬성회 부회장 서창보와 간사 최정규와 상무조합소장 이학재 및 총무 김세제와 보신사장 백종두를 함께 초청하였으며 본 회장 이용구, 부회장 김택현, 총무원 (중략) **한남규** (중략)가 모두 나가 하오 2시에 식당에서 회장 이용구가 式辭를 진술하여 五百木良三에게 2개월간에 재차 도한하여 兩國 大事에 擔任勞苦함을 치사하고 영원히 東洋 維持함을 축하하자 五百木良三이 답사하되, 政合邦 문제가 현금 雖未發佈이나 내용은 已爲歸決이라 認眞하겠고 (중략) 한국 인민의 생활방침은 금년 내에 勝算이 유하오리니 문제를 찬성하는 각 社員은 始終如一히 相愛하심을 務望이라 하고 賓主가 환락하여 동 6시에 산회하다.”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726쪽.

“「일진회 해산비 분배표」

(중략) 일금 6백원(各人 앞) 총무원 **한남규**”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0쪽.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들[흑룡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한국-작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내려 받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뒀으므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芳名」

일진회 간부

(중략) 총무원 **한남규** (하략)”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한국검사 윤갑병 의 105명 서훈 및 賜金 건」,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삼가 재가를 바랍니다.

명치 41년(1908)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桂太郎

서훈 및 賜金 議案

한국검사 윤갑병 의 105명

이상은 러일전쟁 때에 우리 육군이 한국에 들어갈 당시 물자 買收, 車馬 人夫의 징모로부터 宿舎·마굿간의 설비 기타 운수사업을 幫助하거나 또는 민심의 支拂에 노력하고 적정을 정찰 보고하며, 간첩을 簡拔하고, 도로·교량의 수선, 군용 의 감시, 위생사무를 봉조하는 등 누구나 그 공적이 현저함으로 부통감의 상주를 勘査하고 훈등 및 사금액을 擬議하니 다음과 같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	位	한국훈등	제국훈등	씨명
훈7등 서보장	일진회 지부회장 元 함경남도 관찰사				한남규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부록 上, 136쪽.

“(1905년 8월 4일) 함남지부회장 한남규 보고 내에 軍用電으로 통첩을 承准하여 各郡 회원 1천인을 罔夜 起送이라 하였으며 (하략)”

1. 일진회는 1909년 12월 3일 일진회본부에서 총무원과 평의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합방을 청원하기로 의결하고, 12월 4일 순종과 내각·통감 앞으로 일진회 명의의 상소문과 장서를 보내고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때 **한남규**는 일진회의 총무원이었다.

1910년 3월 22일 명월관에서 대한동지회 총대 이오기[五百木良三], 국민동지찬성회 부회장 서창보, 상무조합소장 이학재, 보신사장 백종두, 일진회 회장 이용구 등 일진회 간부진과 회합하여 합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합방찬성단체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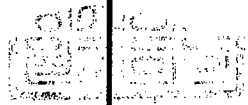
1910년 9월 12일 일진회가 해산될 당시 일본으로부터 해산비 일금 6백원을 분배받았다. 해산비 6백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원장, 간사에 이어 5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934년 11월 29일 일본우익단체 흑룡회가 동경의 메이지신궁 표참도 신궁교 옆에 세운 일한합방기념탑의 석실 안에 일한합방공로자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남규**가 1909년 12월 3일 열린 일진회 임시총회에서 합방청원방침을 결정하고 12월 4일 합방상소문과 청원서를 **순종**과 내각, 통감에게 송부하고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한 때부터 1910년 2월 일본정부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청원서 수리방침을 표명할 때까지 합방청원과정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한남규**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일진회의 복진수송대에 일진회 함경남도지부회장으로서 가담하여, 일본군의 물자조달, 인력징발 등에 협력한 공으로 1908년 11월 일본정부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일은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남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